

# 사슴의 사육관리



양육연구위부위원장  
성 유 석

## 1) 겨울철 사슴의 사육관리

사슴은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이겨낼수 있는 내한성 동물이지만 추위를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온이 영하 10°C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면 열소모량은 적게 하기 위하여 운동을 적게하며 모든 체내 기능이 위축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겨울철 사슴이 사료를 섭취한 다음에는 아침 저녁 운동장을 뛰게하는 가벼운 운동은 바람직하다.

움직이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소화기 장애로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열량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여 체력을 상승 유지시키는 방법도 좋은 예라보겠다.

특히 영양상태가 좋지못한 사슴이나 늦으막하게 출산된 새끼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체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걸려 갑자기 폐사

하는 경우가 있다.

○ 수사슴의 경우 : 겨울철 계속 발정 지속으로 인하여 많은 정력이 소모되므로 농후사료를 많이주어 체력을 보강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암사슴의 경우 : 암사슴의 경우는 임신 초기이므로 이 또한 질 좋은 영양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광물질이 많이함유된 사료나 사료첨가제를 섞어주므로서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소화촉진 효소제나 위기능 항진제등을 투여해서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큰사슴들과 함께 새끼 사슴들은 한우리에 사육하는 경우 힘이센 사슴이나 어미 사슴들에게 밀려서 새끼들은 사료를 제대로 먹지못하여 약한 사슴들은 더욱더 건강이 악화되어 겨울철 추위에 견디지 못해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겨울 철에는 사료가 얼어버릴 경향이 있어 이를 먹을 경우 소화기 장애로 인하

여 설사를 일으키게 되며 이로 인한 탈수 현상으로 폐사하게 되므로 겨울철 배합 사료에는 물로 버뜨려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를 하여 탈수된 사슴은 물을 먹여 수분을 공급 보충하여 탈수 현상을 막아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겨울철에는 사육장내의 급수 시설이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강이 악화된 사슴은 격리칸을 만들어 격리 사육하며 충분한 보온 시설을 하여 추위를 막아 주어야 한다.

## 2) 사슴의 이동

사슴은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사슴 이동 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동 상자는 대, 중, 소로 구별 사슴 종류에 따라 선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쪽 넓은 상자에 소형 사슴을 한마리 이상넣어 운반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사슴은 타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근거리일 경우에는 이동상자에 넣어 그대로 이동시켜도 무방하나 거리가 먼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안정제를 주사한 다음 이동시키면 불안감과 이동중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3) 사슴의 번식

### 가) 사슴의 번식시기

사슴은 조숙성 동물로 이를 봄에 분만된 새끼 사슴은 다유해 늦은 가을이면 발정이 오면서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허나 발육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그후 모체의 발육과 비례하여 번식에 좋지못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신체 발육이 성숙치 않을때에 교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생후 1년 1년6개월 이상지나 번식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통 암사슴의 번식 최적 성숙기는 4년~6년 사이로 혈통과 건강이 좋으면 10세 이상에도 번식을 할 수 있다. 한편 수사슴은 1년이상 부터 번식에 사육할 수 있으나 보통 3세 이상이 적기이며 10세 이상의 수사슴도 혈통이 좋다면 번식에 사용할 수 있다.

### 나) 번식 계절

사슴은 계절적 영향을 받으며 발정 지속 시간이 짧으며 뇌하수체 홀몬의 영향을 받게되므로서 발정이 시작된다. 사슴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시기가 번식 계절이며 또한 번식 계절에는 일광 기온 사료 영양 상태 등과 관련이 된다. 보통 사슴은 8월

하순부터 12월 사이에 교배하게 되는데 분만 시기는 각 사슴의 품종에 따라 분리 분만하게 된다. 암사슴이 임신을 하려면 발정 → 배란 → 수정 → 착상등 과정을 거쳐야되며 발정 시기를 보면 어느 일정한 시기에 심하게 발정을 일으키는 주기를 볼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성선자극 홀몬의 자극 억제 기능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① 발정 : 수사슴의 발정은 비교적 뚜렷하며 식욕이 감퇴하여 불안한 상태에 자주 소리를 지르며 난폭하게 된다.

암 사슴의 경우 외음부가 빨개지며 약간 부종이오며 황색을 띤 질점액을 분비하여 암컷끼리 서로 등에 오르며 수사슴의 교미를 허용하게 됨을 볼수 있다. 암사슴의 발정 주기는 평균 19~20일 사이이며 발정 지속 시간은 약 40시간이므로 이 기간에 수태되지 않으면 제 발정이 11~15일 내에 다시오며 제3 발정은 사슴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② 교배 : 사슴의 배란 시기는 발정 개시 후 2~3일이며 이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교배는 암사슴과 수사슴을 항상 동거시키며 설사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배는 단시간내 끝나게 되므로 수사슴의 번식능력이 임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되며 세심한 주의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마리의 수사슴에는 보통 20~50마리의 암사슴을 동시 번식에 사육할 수 있다.

#### 4) 번식기의 사슴관리

가을철 번식 계절인 사슴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발정 임신수태 과정이 크게 좌우되므로 암사슴과 수사슴 모두에 사료질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여주므로 발정이 빠르며 전사슴의 발정이 고르게오며 분만이 일정하게 되므로 관리와 노력이 절감되며 또한 수태률이 향상될뿐 아니라 쌍둥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확률 또한 가질 수 있게 된다.

수사슴의 경우 암사슴과 번식 계절에 접어 2개월 전부터 분리 영양 상태를 높여 개선하여 주어야 하며 이로인한 높은 수태률은 우수 품종을 얻는데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영양 상태가 매우 양호한 사료만을 계속 급여시키므로 역효과를 초래하지는 말아야 한다. 발정기의 암사슴 쟁탈전으로 인한 수사슴의 심한 싸움은 폐사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빼놓수 없는 번식기 사슴 관리의 중요한 일이라보겠다. ☆